

클래스101 구독, 1년 써본 사람의 모든 것: 내돈내산 후기부터 플랫폼 비교까지 (2025년 최종판)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거나, 직무 능력을 키우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클래스101. "구독만 하면 네 인생이 달라져!"라는 달콤한 광고에 한 번쯤 마음이 흔들려본 적 없으신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끝없는 자기계발의 압박과 퇴근 후 허무한 시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에, 1년 전 큰맘 먹고 클래스101 연간 구독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저는 클래스101의 수많은 강의를 기웃거리며 때로는 만족하고 때로는 실망하며 솔직한 경험치를 쌓아왔습니다.

이 글은 특정 강의를 추천하거나 광고비를 받고 쓰는 홍보성 콘텐츠가 아닙니다. **오직 제 돈과 시간을 100% 투자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클래스101의 민낯을 가감 없이 보여드리는 '최종 안내서'**입니다. 이 글 하나로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민, "정말 돈값 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 맞을까?", "다른 플랫폼보다 나을까?"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클래스101 연간 구독을 결제한 진짜 이유 (100% 내돈내산)

제가 클래스101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탐색의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영상 편집 기술도 배워 부업을 해보고 싶고, 베이킹으로 주말을 채워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오프라인 학원에서 배우려면 수백만 원의 돈과 고정된 시간이 필요했지만, 클래스101은 월 구독료만으로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1년의 여정,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래서, 1년 써보니 돈값 할까? 솔직하게 까보는 장점 BEST 3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돈값 이상을 충분히 한다"입니다. 제가 1년간 구독하며 가장 만족스러웠던, "이래서 사람들이 클래스101을 쓰는구나!" 싶었던 장점들입니다.

1. 압도적인 클래스의 다양성: 취미부터 부업까지 '뷔페식' 학습

클래스101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무기는 단연 콘텐츠의 폭입니다. 아이패드 드로잉, 가죽 공예 같은 감성 취미부터 엑셀, 영상 편집, 주식 투자, 심지어는 MBTI 분석 강의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마치 잘 차려진 뷔페에 온 것처럼, 오늘은 그림을 그리다가 내일은 마케팅 강의를 들을 수 있죠.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프로크리에이트로 이모티콘 만들기'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싶다는 생각에 '블로그 글쓰기 전략' 강의를 들었고, 최근에는 '나만의 밀키트 만들기' 클래스까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 클래스였다면 상상도 못 할 '관심사의 확장'이었습니다. 나의 숨은 재능이나 흥미를 탐색하는 데 이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2. 체계적인 커리큘럼: 유튜브와는 격이 다른 'A to Z' 가이드

유튜브에도 훌륭한 무료 강의를 많지만,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어 초보자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순서대로 배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클래스101은 왕초보의 눈높이에서 시작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준비물 소개부터 꼭 필요한 이론, 차근차근 따라 하는 실습, 그리고 전문가만의 꿀팁까지 커리큘럼 안에 모두 녹아있습니다.

실제 경험으로, '알파카 작가'님의 아이패드 드로잉 클래스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브러시 설정법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채색 노하우, 캐릭터에 입체감을 주는 비법까지 순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강의를 보며 따라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만의 그럴듯한 캐릭터가 탄생하는 걸 보며 엄청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시간과 장소의 자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학습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온라인 클래스의 본질적인 장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 주말 오후 카페에서 등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바쁜 현대인에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눈치 보지 않고 무한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가감 없는 단점 3가지

1년 내내 만족스럽기만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이건 좀 개선되면 좋겠다" 싶었던 솔직한 단점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셔야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완강의 늪: 강제성 없는 온라인 학습의 한계

클래스101의 가장 큰 장점인 '자유'는 때로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아무도 저를 채찍질해 주지

않으니, "내일 듣지 뭐"라며 미루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야심 차게 시작했던 클래스들이 '수강 중' 목록에 먼지처럼 쌓여만 가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강력한 의지와 꾸준한 자기 통제력이 없다면 구독료가 그대로 매몰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택의 역설: 너무 많아서 오히려 뭘 들어야 할지 막막함

수만 개의 클래스는 분명 장점이지만,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의가 나에게 맞을까?", "이 강사님은 잘 가르칠까?" 베스트 강의 목록을 뒤적이며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슷한 주제의 클래스도 여러 개라, 결정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첫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큰 허들이 될 수 있습니다.

3. 강사별 편차 존재: 모든 클래스가 '명강의'는 아니다

모든 클래스의 퀄리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되지만, 강사의 강의 스타일이나 전달력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강사님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반면, 어떤 분은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설명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결제 전, 미리 보기 영상과 커리큘럼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다행히 구독제는 여러 강의를 맛볼 수 있어 리스크가 적은 편입니다.

클래스101, 다른 플랫폼과는 무엇이 다를까? (주요 플랫폼 전격 비교)

클래스101의 장단점을 알았다면, 이제 시야를 넓혀볼 차례입니다. 내 목표에 더 적합한 다른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플랫폼들과 클래스101을 솔직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비교

플랫폼	클래스101	콜로소 (Coloso)	탈잉 (Taling)	인프런 (Inflearn)
핵심 분야	취미, 부업, 자기계발	직무 심화 (디자인, 영상 등)	실무 스킬, 1:1 튜터링	IT, 프로그래밍, 개발
타겟	입문자, 취미	현업	직장인, 대학생	개발자, IT

	유목민	주니어~시니어		지방생
콘텐츠 깊이	넓고 얕음	좁고 깊음	다양함 (VOD, 라이브, 오프라인)	매우 깊음 (IT 분야 한정)
가격 정책	구독제 / 개별 구매	개별 구매 (고가)	개별 구매 / 일부 구독	개별 구매 (가성비) / 일부 로드맵
강점	압도적인 다양성, 입문자 친화적	업계 최고 전문가 라인업	VOD 외 튜터링/전자책 등 형태 다양	독보적인 IT 콘텐츠, 강력한 커뮤니티

플랫폼별 상세 분석

- **클래스101: 넓고 얕은 '취미 백화점'**
"월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 봤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분야를 넓게 다루므로, 명확한 목표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싶은 분에게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 **콜로소(Coloso): 현업 최고 전문가의 '심화 과정'**
"진짜 프로에게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이곳입니다. 업계 거장들을 강사로 내세워 특정 전문 분야를 매우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가격대는 높지만, 관련 분야에 종사하며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실무자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 **탈잉(Taling): VOD부터 1:1 튜터링까지 '맞춤 학습'**
"영상만으론 부족해? 직접 만나서 물어봐!"라는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VOD뿐만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 1:1 온/오프라인 튜터링 등 가장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과 소통이 중요한 분에게 적합합니다.
- **인프런(Inflern): IT/개발자를 위한 '지식 공유의 장'**
"개발자라면 모를 수 없는 성지"입니다. IT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자랑하며, 실무 중심의 깊이 있는 지식을 다룹니다. 개발자로 커리어를 쌓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면 다른 플랫폼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결론: 나에게 딱 맞는 플랫폼은? (상황별 추천 가이드)

지난 1년간의 경험과 타 플랫폼 분석을 통해 얻은 최종 결론입니다. 이 파트만 읽어서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클래스101을 선택해야 하는 당신은?

-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 다양한 분야를 조금씩 맛보고 싶은 '취미 유목민'
- "완전 처음인데,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 **A to Z**를 떠먹여 주는 가이드가 필요한 '완전 초보자'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틈틈이 배우고 싶어요." →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프로 자기계발러'

👎 다른 플랫폼을 고려해 봐야 하는 당신은?

-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 '콜로소'에서 업계 최고 전문가의 심화 과정을 들어보세요.
- "개발자로 취업/이직하고 싶어요." → '인프런'에서 실무 중심의 **IT** 지식을 쌓는 것이 정답입니다.
- "질문도 하고 피드백도 바로 받고 싶어요." → '탈잉'에서 **1:1** 튜터링이나 라이브 클래스를 찾아보세요.
- "명확하게 듣고 싶은 강의가 딱 하나뿐이에요." → 구독보다는 해당 강의만 '개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FAQ)

Q1. 구독 중 환불은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책에 따라 결제 후 7일 이내,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강의를 시청했다면 시청 기록에 따라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으니, 결제 전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개별 클래스 구매와 구독 중 무엇이 더 나을까요?

A2. 듣고 싶은 클래스가 1~2개로 명확하다면 개별 구매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클래스에 관심이 있거나, 저처럼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싶다면 단연 구독이 경제적입니다. 보통 클래스 2개 정도의 가격이면 1년 구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3. 준비물 키트는 구독에 포함되나요?

A3. 아니요, 구독은 클래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이며, 드로잉 도구나 공예 재료 등이 포함된 준비물 키트는 필요시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솔직한 경험과 분석이 여러분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데 작은 등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클래스101이든 다른 어떤 플랫폼이든,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